

전일동향

전일대비 0.30원 상승한 1,403.20원에 마감

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0.30원 상승한 1,403.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0원 상승한 1,404.2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1,409.50원까지 상승했으나, 미국 정부 섀다운 및 국내증시 외인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폭을 반납했다. 이후 보험권으로 하락하며, 1,403.2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2.3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04.20	1409.50	1401.60	1403.20	1406.00
	엔화	948.46	957.32	943.95	953.93	-
	유로화	1646.02	1653.83	1642.67	1645.67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8	-6.13	-12.83	-24.02
	결제환율(수입)	-1.05	-5.1	-10.82	-20.4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섀다운 돌입에...1,40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00)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03.20) 대비 0.60원 하락한 1,400.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섀다운에 따른 약달러에 하락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일부로 미국 연방정부는 업무 정지에 돌입했다. 이에 연방공무원 무급 휴가 및 BLS 고용 보고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미국 9월 ADP 민간고용은 전월비 3.2만 건 감소해 예상치(5만)를 하회했다. 미국 섀다운으로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민간 고용 데이터가 시장의 핵심 지표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졌다. 달러화는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 및 민간고용 부진에 약세를 보이며, 0.09 하락한 97.74를 기록했다. 미국 섀다운에도 위험선호심리가 지속되며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약달러 압력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험선호심리에 따른 국내증시 외인 매수세는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미 환율 합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 및 달러 실수요 매수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97.40 ~ 1406.6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454.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60원 ↓
	■ 美 다우지수 : 46441.1, +43.21p(+0.0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2.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399 억원